

말했네.

“너도야 우리 아들, 너도 좋은 일을 한 거야.”

두 어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오두막에 도착하자 흑인 탈주노예들에게 푸짐하게 먹을 것을 차려주었고, 노예들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로 두 집안의 빈영을 기원하면서 자신들의 숲으로 돌아갔어.

이 두 가족에게는 하루하루가 행복과 평화로 가득한 나날이었네. 시기심이나 야망이 그들을 괴롭히는 일도 없었지. 음모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모함으로 인해 빼앗기는, 그런 바깥에서의 헛된 평판도 전혀 바라지 않았으니, 두 가족은 서로가 서로의 됴됨이를 살펴 주고 그것을 헤아려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음이야. 유럽 식민지 어딜 가나 마찬가지로 찬가지겠지만, 이 섬에서도 악랄한 뒷담화가 아니고서는 사람들이 별 흥미를 느끼지 않아, 두 가족의 덕행은 물론 그들의 이름조차도 도외시되고 있었다네. 다만 왕굴나무길을 지나가던 어느 행인이 평지 사는 사람들에게 “저 위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는 누가 산답니까?” 하고 물으면, 이 주민들은 잘 알지는 못해도 그저 “거긴 착한 사람들이 살지요.”라고 대답하곤 했다지. 이처럼 가시덤불 아래 있는 제비꽃은 비록 보이진 않더라도, 저 멀리까지 제가 가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법일세.

두 가족은 대화 중에도 험담을 금했으니, 그 험담이란 것은 정의를 빙자하여 마음속에 반드시 증오나 위선을 심기